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 사회 :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 발표 : 천규승(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 토론 : 김종호(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곽재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송태희(금융감독원 연구위원)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천규승(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 I. 序:문제의 제기
- II. 금융 여건과 가계 환경 변화
- III. 국내외 금융교육 흐름
- IV. 결론 및 제언

I. 序: 문제의 제기

-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여 범국가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려는 추세
 - 금융이해력을 단순한 생활 편의수단이 아닌 생존수단으로 인식¹⁾
 -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 금융회사에서 개인이나 가계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는 분석
 -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금융소비자의 실제 지식은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금융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금융회사 직원이나 거래중개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관점
 - 금융교육은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된다는 평가
 - 선진국의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 증가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조
 - 정부가 학교·민간단체·금융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애교육 차원에서의 국민 개개인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대처

1) Katy Jacob, "Tools for survival: An analysis of financial literacy programs", Woodstock Institute, Jan. 2000

- 특히 청소년기의 금융이해력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금융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금융교육을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독립 과목화하고, 교육내용을 실용화하는 경향
 -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부채 확산 정책에 기인한 서브 프라임 모지기론 사태가 개인 파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이 되었다는 점을 계기로 금융 거래 기량 향상에 주안점을 둔 기존 금융교육에 관한 반성 대두
- OECD는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금융상품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융 역량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
 - 무지한 상황에서 내린 개개인의 부적절한 신용행위가 재앙에 가까운 금융위기 촉발의 토양이 되었다는 분석
 - 금융교육이 필수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정부당국 등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권고²⁾
-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은 지난 10여 년간 경제 문제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 확대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대중화되고 있으나 교육 목표 설정이나 교육 방식, 도구, 콘텐츠 등의 구체적 세부 추진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아 내용적 미성숙 상태
 -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가 아닌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어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시수도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교육 내용도 이론 교육에 치우쳐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교수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2)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Protection: Overlooked Aspects of the Crisis", OECD RECOMMENDATION ON GOOD PRACTICES ON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LATING TO CREDIT, JUNE 2009

II. 금융 여건과 가계 환경 변화

1. 금융 여건의 변화

□ 개개인의 금융 역량이 경제적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 도래

-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금융 결정은 경제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
- 개개인의 금융 선택이 미래의 소득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

<표 1> 금융 여건의 변화

요 인	금융 여건
인구통계학적 변화	고령화 사회 도래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 의사결정의 중요성 증대
금융시장·금융상품의 변화	금융상품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화
금융 의사결정의 과급효과 변화	금융상품에 잠재된 위험 증가로 수익성 차별화

□ 금융 위험의 가계 이전 심화

- 금융상품 발달과 더불어 금융 위험이 금융회사에서 가계 부문으로 급속히 이전됨에 따라 가계 건전성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³⁾
- 최근 들어 금융 거래로 인한 피해, 분쟁 다발. 약탈적 대출과 금융 사기 성행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⁴⁾
 - 무계획한 금융 투자 및 대출 급증, 신용 불량 만연
 -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과 청소년 신용불량자 대두
 - 금융 피라미드,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 사기 사건에 무방비 노출
 - 은퇴 계층의 불완전 펀드 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 상조회사의 과다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

3) Jeanne Hogarth, "Financial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ECD International Conference*, Nov. 2006

4) Marco Habschick,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Schemes in the EU27", Nov. 2007

- 금융 거래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 민원 발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여 사후적인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증대
- 금융이해력의 향상은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부채 감소, 중산층의 원만한 노후 설계를 도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

<표 2> 금융 선택과 가계 위험의 변화

시점	금융 선택	가계 위험
과거	원금 손실을 감안할 필요가 없는 단순 의사결정 (예) 고정 금리부 예금, 확정 지급형 연금보험 등	금리, 계약시점 등에 따른 성과의 상대적 차이
현재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예)외화예금, 유니버설변액보험, 주식형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의 종류나 거래상대방 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2. 가계 환경의 변화

- 1인당 국민소득이 55년 만에 30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⁵⁾ 개인 소득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는 가운데 기대수명의 연장, 여성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자녀수 감소, 디지털 사회 급진전 등 가계 환경 급변
- 개인저축률 감소
 - 최근 10여 년간 총저축률 중 개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이하로 감소⁶⁾, 개인순저축률은 10분의 1 이하로 감소⁷⁾
 - 압축 성장기에는 산업 자본 확충을 우선 과제로 하는 정부의 의지와 빈곤 탈출과 소득 증대를 바라는 개개인의 욕구가 뒷받침된 가운데 저축

5) 1953년의 67달러(1인당 GNP : 1975년 기준)에서 1997년 20,0450달러(1인당 GNI : 1990년 기준)로 증가, 통계청의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2008. 8. 참조

6) 총저축률에서 가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1995년 평균 53%대에서 2006년-2008년 평균 15%로 감소, 총저축률이란 국민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

7) ①개인총저축률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저축’을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로서 1996년-2000년 평균 14.2%에서 2006년-2008년 평균 4.8%로 감소. 한국은행의 “외환위기 전후 가계소비의 경기대칭성 변화분석”, 2009. 7. 및 “저축률의 국제비교와 평가”, 2009. 8. 참조, ②개인순저축률은 ‘개인부문 순저축’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과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분’의 합계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하며 1990년대 초반 23% 내외, 1997년 15%,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에서 2007년에는 2.3%로 감소, 순저축이란 ‘전체 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과 ‘고정자본차감분’을 뺀 값

추진중앙위원회⁸⁾ 중심의 강력한 저축교육의 영향으로 성공적인 저축 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폐지되고 저금리 사회가 도래하면서 저축에의 국민적 관심 저하

□ 부채의존형 금융생활 확산

-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2배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4배 이상 증가⁹⁾,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이자 지출은 22.5% 증가¹⁰⁾.
- 교통·통신비 및 문화 활동비, 노후 대비 자금 증대 등으로 가계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소비의 질적 기대 수준이 소득 증가 범위를 넘어섬에 따라 부족해진 소비재원을 대출로 해결하려는 경향
 - 가계 부채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나 빚 돌려막기로 사용되는 경향
 - 주택 대출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으로 20% 가량의 가처분소득 감소 경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¹¹⁾
- 가계 지출을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경향 만연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4.1매 소지, 민간 최종 소비 지출액의 6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¹²⁾
 - 현금 결제 시는 지난 달 소득으로 이 달 소비 지출을 충당하나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다음 달 소득으로 이 달 소비 지출을 충당하게 되어 가계 생활의 부채 의존 심화

8) 정부는 1964년 저축의 날을 지정하고 1969년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의 자발적 저축운동을 조직화, 체계화하기 위해 저축기관,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특수법인인 저축추진중앙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소년 저축교육, 합리적인 생활설계 제도, 저축실천그룹 육성, 등 저축증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후 동 법률은 1976년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1987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동 법률의 부칙에 의해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1997년 12월31일 소멸

9) 가계부채비율은 '가계 부채'를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로, 1인당 국민소득 만 불을 달성한 1995년의 72.7%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2007년에는 148%로 2배 이상 증가, 한국은행의 ECOS, 자금순환 및 국민계정 참조

10)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 지출 증가율은 2009년 2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수치, 통계청의 2009년 2분기 가계동향, 2009. 8. 참조

11) 주택대출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05년 가처분소득의 15.3%에서 2008년에는 20.1%, 이자지급액은 가처분소득의 10.2%에서 13.5%로 급증. 연 8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소득계층은 2007년의 경우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의 15.7%, 연 5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소득계층은 22.3% 부담.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계의 채무상환부담 평가, "금융안정보고서" 제13호, 2008. 5. 및 "금융안정보고서" 제14호, 2009. 4. 참조

12) 민간소비 중 카드결제 비중은 1990년 5.6%에 불과하다가 2000년 24.9%로 늘어난 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02년 45.7%까지 뛰어올랐고 2007년 49.5%,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카드 결제금액이 급증 2009년 2분기에는 51.7%를 점유,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 현황", 2009. 6. 참조

- 20세 이상 국민 3천500만 명의 23%에 해당되는 813만 명이 ‘신용주의 등급’ 또는 ‘신용위험 등급’에 있고, 그 중 1/4 이상인 217만 명이 금융 대출은 물론 창업과 취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¹³⁾
- 저축 유인 정책보다는 미소금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 상환의 실효성을 구체화하지 않은 서민대상 소액 대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도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부채의존형 금융생활이 더욱 확산될 우려

□ 빈익빈 부익부 진전

- 전국의 가구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감소, 소득 상위 계층은 흑자, 하위 계층은 적자 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급진전¹⁴⁾
 - 급변기의 위험 대비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계층 증가
 - 청년 실업, 불완전 고용으로 인한 미자립 청년 계층 증가
 - 이혼율 증대에 따른 저소득 모자 가족 증가
 - 결혼 이민, 탈북 등으로 인한 저소득 다문화가정¹⁵⁾ 증가
 - 노후대비가 미흡한 은퇴 이후 연령층 증가
 - 자립 의지를 가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증가

□ 도덕적 해이 진전

- 각종 채무 조정, 농가 부채 탕감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한 관용적 정책 기저로 채무 상환 의식이 희박해지는 등 모럴 헤저드 확산 우려
- 마스크 등 사회 일각에서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사금융 이용자의 극단적 피해 사례를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불량 채무에 면죄부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경향¹⁶⁾

13) 한국신용정보, 2009년 6월 신용등급보고서 및 신용회복위원회 2009년 4월 금융채무불이행 실태보고 참조
 14) 2009년 2분기 전국 가구 소득은 월평균 329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90만1900원으로 2.7% 감소, 전국 가구 이자비용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소득 상위 20%는 월평균 가계 흑자 207만원, 하위 20%는 월평균 적자 38만원, 통계청, 2009년 2분기 가계동향, 2009. 8. 참조
 15) 최저생계비 미만 가정이 52.9% 차지,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9. 1. 참조
 16) 20세 이상 국민의 5.4%에 해당되는 189만 명이 사금융 이용, 총 16.5조 원 규모 (사금융 이용자 1인당 평균 873만원), 그 중 절반 이상이 법정상한선(49%)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17.5%(33만 명)가 무등록 대부업자를

III. 국내외 금융교육 흐름

1. 금융교육 발전과정

□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이란 「금융에 관한 지식, 기량, 태도」의 함양 과정을 총칭

－ 금융교육은 돈의 관리 방법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 금융이해력교육(financial literacy education)
- 금융소비자교육(financial consumer education)
- 금전관리교육(money management education)
- 개인재무관리교육(personal financial education)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

－ 그 목적과 대상에 따른 하부구조로서

- 소비저축교육(consumption and saving education)
- 신용교육(credit education)
- 투자자교육(investment education) 등을 포함

□ 금융교육과 경제교육, 소비자교육의 관계

－ 경제교육은 경제 성장 과정에 따라 직업교육, 소비·저축교육, 금전관리교육, 시장경제교육 단계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주안점으로 하는 노동교육, 기업가교육, 납세자교육, 경제윤리교육 단계를 거쳐, 개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는 개인재무관리교육, 신용교육, 투자자교육, 진로교육, 창업교육, 환경교육의 순으로 발전하는 경향

－ 선진 각 국에서 금융교육은 경제교육 또는 소비자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¹⁷⁾,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독립

이용하는 등 불량 채무 가능성 성존, 금융위원회의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2008. 6. 및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2009. 4. 참조

17) 경제교육은 희소성, 기회비용, 수요와 공급, 소비, 생산, 한계효용, 소득 등 경제 기초개념에서 환율, 재정정책, 금리정책, 국제통상에 이르기까지 경제학 또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폭넓은 내용을 포괄하고 소비자교육은 소비자 권리 및 책임, 합리적 의사결정, 개인 재무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금융교육은 합리적 금전관리,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 신용관리, 금융상품의 특성 및 선택기준,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이해 등 경제교육적 요소와 소비자교육적 요소의 합집합적 성격

영역으로 세분되는 추세

- 개인생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반면, 저축보다는 수익성 높은 금융 투자 중심의 자산 관리 선호로 금융 위험의 가계 이전이 심화되면서 이론에 치우친 전통적 교육방식에의 반성 대두
- 우리의 경우 금융교육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국가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채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도덕교육 측면의 접근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표 3> 금융교육 구성 요소¹⁸⁾

구 분		내 용
지식적 측면	금융 지식의 이해 (Financial Knowledge & Understanding)	금융산업의 기능과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여건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
기량적 측면	금융생활 기량과 활용가능성 (Financial Skills & Competence)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투자 기회를 포착 실행할 수 있는 기량
태도적 측면	금융 책임성 (Financial Responsibility)	금융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태도

2. 선진 각국의 금융교육 경험¹⁹⁾

가. 미국의 경우

-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상품의 복잡화,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노후대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개인재무관리를 중심으로 금융교육에의 국민적 관심 집중
- 1990년대 후반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일련의 조사 이후 청소년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 대두²⁰⁾

18) "Why financial capability matters", *Canadian Policy Research Initiative*, Jun. 2005

19) 선진 각국의 경험은 금융감독원의 「해외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2004, 「주요국의 금융교육 강화추세 및 시사점」, 2005, 「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시사점」, 및 「주요국의 금융역량강화 시스템」, 2008, 전국은행연합회, 선진국의 금융교육 실태 및 시사점, 2005, World Bank,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2007, OECD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Protection: Overlooked Aspects of the Crisis", OECD RECOMMENDATION ON GOOD PRACTICES ON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LATING TO CREDIT, JUNE 2009 참조

20) 1997년 점프스타트의 12학년생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낙제점, 특히 여성, 유색인종 등 소수집단의 금융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금융지식의 차이가 계층간·집단간 소득 불균형 심화의 요인이 되고, 부모들의 금융문맹이 유전되고 있다는 결론, 경제조사청의 조사결과에서는 고교시절 금융교육 이수경험

- 2000년의 IT버블을 계기로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금융 감독 당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대학과 종교기관, 금융회사의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 간의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파
- 정부는 청소년금융교육법(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6)을 제정하여 점프스타트, 전국금융교육기구 등 금융교육 전담 민간 기구에 5년간 (2007-2011년) 매년 1억 달러씩 지원

□ 학교 금융교육 강화 추세

- 재무부,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 기구가 범정부 차원의 금융교육위원회(FLEC : Financial Literacy & Education Commission, 2004)를 설립하고 청소년이 사회 진출을 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개인재무관리 기량을 습득하도록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
 - 금융 이론 등 학문적 개념에 대한 학습·암기보다는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량을 중심으로 금융의 기초 개념에서부터 생활 설계, 자산 관리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추진
- 각 급 학교는 주 교육위원회의 교육 관련 법규와 교육 기준에 따라 주 교육부가 개발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소비자교육', '개인재무관리' 등 주마다 상이한 과목의 금융교육 실시
 - 점프스타트의 「개인재무관리 국가 표준」(2002년)²¹⁾에 따라 은행계좌 개

자의 고교 졸업 15년~20년 후 평균 저축률은 8.5%인데 비해 금융교육 이수 무경험자의 저축률은 7.0%, 미국 저축교육협회(ASEC)의 조사결과는 고교생 및 대학생의 79%가 금융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금융이해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정규 교육과정화, 금융교육 교재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DB 구축,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의 정례화 등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21) 미국 점프스타트의 개인재무관리 국가 표준

1. 소득	2. 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원천 ▪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기업가정신 ▪ 조세와 정부 서비스 ▪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 사회보장과 노인 의료혜택 ▪ 사업주 제공의 저축 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와 욕구 ▪ 금융 의사결정 ▪ 예산 ▪ 금융 책임 ▪ 보험, 위험 관리 ▪ 금융 관계 정보원 ▪ 개인 금융 플랜 ▪ 유언장 등의 법적 서류
3. 지출과 신용	4. 저축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쇼핑 ▪ 기회비용 ▪ 지불 방법 ▪ 소비자 정보 ▪ 소비자의 불만 신청 절차 ▪ 신용카드의 비용과 기록 ▪ 파산을 포함한 신용 문제 ▪ 소비자신용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과 투자를 하는 이유 ▪ 저축과 투자 상품 ▪ 위험, 수익, 유동성 ▪ 복리 증가와 화폐의 시간 가치 ▪ 72의 규칙과 달러-비용 평균법 ▪ 포트폴리오 ▪ 계획서와 정보원 ▪ 금융시장의 규제 ▪ 사업주 제공의 저축 플랜

설, 개인 신용등급 유지, 학자금 대출·모기지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재무관리 과목을 고교 졸업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주 증가²²⁾

- 지역 금융기관과의 연계 아래 은행 시스템 및 예금상품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스쿨뱅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축교육 활성화²³⁾

□ 금융교육 공교육화에 관한 공감대 조성, 법제화를 통한 교육의 구심점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금융교육의 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개개인의 금융생활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는 평가

- 독일과 일본이 저축과 절약을 생활의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미국은 최근 20여 년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은 수입에 의존하고 필요 자금은 금융산업을 통해 버는 기형적 구조가 진행된 결과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활동이 만연
 - 금융 주도 경제시스템을 맹신한 결과 청교도 정신으로 대변되던 건국 초창기와는 달리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국민생활 행태가 저축이나 절약으로부터, 대출이나 금융투자 기량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 금융시스템 및 금융상품의 복잡화로 정보 혜택에 장벽이 쌓인 결과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금융상품 판매자, 모기지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등 판매 대리인의 금융 조언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경향
 - 이자가 적은 저축대신 부동산, 주식, 펀드 투자가 선호되면서 개인 금융생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 구조가 만연된 반면, 모기기 론이나 신용 소비와 같은 빚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융생활에 수반되는 책임감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인식.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마이너스로 전환, 불량 채무와 개인 파산 급증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Jump\$tart*, 2002

22) 개인재무관리 과목을 고교졸업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는 2004년의 7개에서 2007년에는 14개로 증가
23) ①'School Savings Program' 수업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 학교은행(School Branch)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축 체험기회 제공 '저축은 재미있다(Saving is Fun!)'는 슬로건 아래 예금 시 스티커 제공 등 저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 각 지역 은행들이 학교은행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재정적인 지원,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제 운영을 전담, ②'National Teach Children to Save Day(NTCSD)' 매년 4월중 하루를 '저축의 날'로 지정, 은행 직원이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저축의 중요성, 은행 상품 및 은행 이용 방법 등을 강의

- 대출자, 금융회사, 감독 당국, 전문가 집단의 총체적 모델 헤저드가 빚어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를 계기로 금융거래 기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금융교육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론이 대두되고 금융 선택의 결과에 관한 태도, 의지 등 금융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변화

나. 영국의 경우

-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에 이어 개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금융이해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금융교육을 강화
 - 2003년 정부 차원에서 국가금융역량강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수립하고, 민관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²⁴⁾를 설치하여 국민 각층을 대상으로 금융 정보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2008년 7월 재무부와 FSA는 국가금융역량 강화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금융교육 지원을 강화
 - 국고, 기부금 및 FSA 분담금 등으로 매년 3,500만~4,000만 파운드를 금융교육에 지원, 학교 금융교육 강화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²⁵⁾.
- 학교 금융교육의 핵심 내용은 FSA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구성
 - FSA는 청소년 대상의 교재 편찬²⁶⁾, 금융교육 프로그램²⁷⁾개발, 금융이해력 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협회,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학교 금융교육 전담기구인 금융교육연합회(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1996)를 설립

24) 금융감독청(FSA)·교육부·재무부·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금융회사·금융협회·소비자단체 등 민간기관이 참여, 위원장은 FSA의장

25) ①재무부의 「My Money」 프로그램에 1,150만 파운드 지원 : 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대상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재 지원, 학부모 대상 교육, 교사 대상 연수 사업 등을 실시, ②FSA의 「Learning Money Matters」 프로그램에 1,600만 파운드를 투입 : 중·고등학생 대상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2,400학교, 2011년까지 4,000여 학교(180만 명)에 교육 자재 지원, 금융교육 강의 및 훈련 등을 실시, 시행 주체는 모두 Pfeg

26) 이론이나 용어 중심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활동 중심으로 구성, 특히 교재의 각 장 별로 습득 가능한 교육 목표와 관련 정규 교과과정(수학, 일반사회, 윤리 등)의 교육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금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Mega Money'(화폐개념에 대한 이해, 5-11세용), 'Money Counts'(실생활과 관련 금융능력을 개발, 5-11세용), 'Colossal Cards'(비현금 화폐에 대한 이해, 10-14세용), 'Making the Most of it'(리스크, 윤리적 투자 등을 교육, 14-19세용), 'Looking after the Pennies'(일상생활의 가상 금융 상황을 소재로 한 비디오 교재) 등

27) 2008년부터 1일 교육 프로그램인 "Young People and Money" 실시, 2011년까지 2만 명 교육 계획

- Pfeg은 학교 금융교육 내용 표준을 설정²⁸⁾하고 다양한 수준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
 - 수학 교과서에 금융과 연관된 문제를 수록하는 등 핵심 과목에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통합 교육 추진
 - 우수 교재에 “피펙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교재 선택을 유도
 - 각 급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 향상을 도모

□ 주요 금융회사는 각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은행 지원, 강사 파견 등으로 금융교육을 지원

- National Westminster Bank는 은행 직원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는 Face 2 Face with Finance²⁹⁾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국 전역의 45%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에 교육 지원
- HSBC는 영국 전역의 650여 개의 중학교에 학생과 자원봉사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은행의 설치를 지원

28) Pfeg와 교육부와의 공동 작업으로 개발, 지식(knowledge), 활용 능력(ability), 태도(attitude) 등의 3가지 영역별로 연령별·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 목표로 구성

Pfeg의 학교 금융교육 내용 표준

핵심개념	주요내용	5-7세 대상	8-11세 대상
금융지식 (Financial Understanding)	돈의 개념과 역할	동전과 지폐 세계 각국의 동전과 지폐 물물교환과 화폐의 발달	수표, 신용카드 등 화폐형태 신용의 개념
	돈의 원천	용돈, 일을 통한 소득 고정수입과 변동수입	직업의 세계, 연금의 개념 노후대비 필요성
	지출	사고 싶은 물건 어른들의 지출 이해	가계 지출 세금의 필요성 및 용도
금융 활용능력 (Financial Competence)	돈 관리	돈 보관 방법 돈 관리를 위한 기록의 필요성	은행의 필요성 재무관리 기록의 중요성
	소비와 예산	지불의 의미 소비방법	저축의 필요성, 저축방법 예산수립
	위험과 수익	돈 분실 또는 도난의 결과	이자 개념, 대출 보험의 필요성
금융 활동의 책임 (Financial Responsibility)	생활 속의 선택	돈의 가치, 소비에 따른 만족 기회비용과 선택 최적의 소비의사 결정	필요와 욕구의 구분 불량채무와 우량채무
	금융의 의미	돈의 과다에 따른 결과 분배의 중요성	금융 의사결정과 윤리 자발적 기부

29) 은행업무 기초(Basic Banking), 신용카드(Credit Card), 직업 체험(Work Experience) 등 10여 개 강좌로 구성

- Royal Bank of Scotland는 Face2Face with Financ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700여 학교 75만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교육하고, 학교 내 가상은행을 개설하여 은행업무 체험기회를 제공

다. 일본의 금융교육

- 학습지도요령(학교교육법에 의해 문부과학대신이 지정 공시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금융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지정하고 사회, 실과, 도덕 과목을 통해 수업
 - 금융홍보중앙위원회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추진 지침'에 의해 초·중학교는 금전교육, 고등학교는 금융·경제의 전반적 내용 중심의 금융교육 실시
 -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수업은 학습지도요령을 중심으로 개별 학교장이 정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
 - 수업시수 부족과 이론 중심의 교육,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학교 금융교육이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금융홍보위원회는 「금융홍보상담위원」으로 등록된 500명의 금융관련 전문 인력을 각 급 학교에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파견하여 학교 금융교육을 보완

라. 호주의 금융교육

- 호주 정부는 개인 파산 급증이 금융교육 결핍에서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 것을 계기로 「국가금융이해력체계」(National Financial Literacy Framework : 2005)를 설정하고 유치원부터 10년간의 학교 금융교육 의무화와 교육내용 체계화를 추진
 - 국가금융이해력체계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 금융교재 편찬 및 평가, 교사 수업 지도의 기준 역할
 - 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에 의해 설립된 금융교육재단(FLF: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은 재무부 예산 지원으로 교재 편찬, 교사 연수 등 학교 금융교육 지원 사업을 집행
 - 금전 관리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이해력에 관한 조사 시행

- 금융 감독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교육재단의 사업 방향을 자문하고, 외국 금융교육 사례를 참고로 학교 금융교육 개선방안 수립, 교육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³⁰⁾, 인터넷·방송매체·인쇄물 등을 통한 금융 정보 제공 등 정부 금융교육 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마. 뉴질랜드의 금융교육

- 2001년부터 퇴직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가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 추진
 - 국민 개개인의 금융 복지 달성을 위해 금융교육 실시, 자료 제공 및 4년 주기의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 뉴질랜드 기업가신탁기금(Enterprise New Zealand Trust)³¹⁾은 10대 금융교육의 핵심 원리³²⁾를 제시하고, 학교 금융교육 지원 사업을 집행

바. OECD의 권고

- 정부가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
 - 장기 전략, 실행 계획 및 이를 보증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학교 금융교육 의무화, 신용 보유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광고·캠페인,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금융 소외 계층 대상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권장
 - 청소년의 경우 금융 소비 의사 결정 기회(핸드폰 요금제 선택, 대학 등록금 관련 금융 문제 등)가 증가하는데 비해 교육적 대처가 부족하며, 특히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의 압박, 교사들의 자신감과 능력 부족, 교수 학습

30) 금융투자, 전자상거래, 보험, 분쟁조정절차, 소비자주권, 신용, 퇴직 후 생활설계, 노령퇴직연금 등

31)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교사단체 등의 후원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설립한 민간 청소년 교육 단체

32) ①저축, 소비, 신용관리 등 모든 금융문제의 최종책임은 개인에 귀속

②개인은 성향, 가치관,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금융문제에 다양하게 반응

③금융계획 수립에는 장단기 기간 구분, 적절한 금융지식, 계획달성 의지가 필수적

④인생의 목표와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선택이 금융계획에 영향

⑤금융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영향

⑥현재의 금융행위가 미래의 소득, 재산, 복지에 영향

⑦소비와 저축간의 상호관계가 금융 복지를 결정

⑧개개인의 상황과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금융 선택 결과 가변

⑨금융 선택의 결과는 법률에 좌우

⑩금융위험은 금융선택 결과의 일부로서 이해, 관리의 대상

방법 미흡 등으로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 금융 당국,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이 제각각 금융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교육 내용의 혼란과 무분별한 정보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내용에 관한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 의해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권고

3. 국내 금융동향

□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대중화되고 있으나 구체적 대응전략 부족

- 압축 성장 과정에는 정부 주도 하에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저축교육이 추진되어 성공적 결실을 맺었으나, 저금리 사회가 진전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저축에의 관심이 소홀해 지고 재테크 기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

- 외환 위기 이후 금융 부문의 급격한 구조 조정을 겪으며 정책 홍보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해설, 건전한 가게 운영을 위한 금전관리교육,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진행된 신용교육, 저금리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자교육 등으로 교육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만한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지 못함.

- 학교와 사회, 가정의 역할 보완, 또는 청소년과 성인 교육의 연계, 미래 사회의 변화 등에 대비한 장·단기 마스터 플랜과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 교육 컨트롤 타워 부재, 교육 리더십 부족 등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대응이 극히 미미

□ 금융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교육의 당위성 논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관한 컨센서스 미흡

- 교육 방식이나 내용이 교육 수요자의 이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함.

- 기 실시되고 있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은 대부분 미국이

나 일본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경제환경이나 가계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생

-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현상 진단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내용 평가 부재

4. 학교 금융교육 실태

□ 8.15 광복 직후 미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과서 편찬 기준으로 제정한 교수요목과 정부 수립 이후 1955년의 제1차 교육과정 개정 이래 금융 부문을 범교과 차원의 학습주제로 규정

- 1987년의 5차 교육과정 개정과 1992년의 6차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 기술가정(실과) 및 도덕 과목에 지출 관리, 금융기관 이용 등 실용적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실제 금융생활에 활용할 만한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함.
- 최근의 교육과정³³⁾에서는 중학교 사회 과목과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 금융 관련 학습 시수를 부분적으로 확대
 - 그러나 학교 금융교육은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도덕교육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
 - 현실적인 교육 수요와의 격차로 금융 캠프 등 교육적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교육 시장 활성화의 빌미를 줌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의 경우 사회과, 도덕과, 실과(기술·가정)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금융교육이 추진되는 등 학습주제가 교과별로 분산
 -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도덕으로 이어지는 바른 생활과 사회·과학 통합과목인 슬기로운 생활에서 물자 아껴 쓰기와 물건 사기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서의 금전 관리 내용 포함.
 -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사회와 실과에서 용돈 관리와 은행 이

3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2차 부분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2008. 12. 26

용 등 금융생활 관련 내용 포함.

-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도덕, 기술·가정 과목은 개인재무관리 기초 내용과 금융생활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학습 기회 부족, 특히 신용관리 및 보험, 노후대비 등 위기관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취급되지 못함.
-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인문계는 금융이론이 포함된 경제과목 선택 비율이 25.4%, 금융생활 또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활경제 및 가정과학 과목 선택 비율은 남학생 14%, 여학생 35%로 금융과 관련된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³⁴⁾
-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는 2009년 교육과정 개편안에서는 금융교육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과목의 수업이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종료되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금융과 관련된 수업이 학교에 따라 완전히 배제될 우려³⁵⁾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완성년도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변경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사회」, 「기술·가정」, 「도덕」 과목을 공통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환
-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등 4개의 선택 과목을 2개로 묶으면서 사회교과군 전체(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 등 4개 영역)의 11개 과목³⁶⁾ 중 3과목만 선택
- 금융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생활경제」, 「가정과학」 과 제2외국어 교과군, 기타 소양 과목 등으로 편제되어 있는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서도 전체 32과목 중 3과목만 선택
- 선진 각국이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로서 필수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기왕에 필수 이수하게 되어있는 학습 기회마저도 배제하겠다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

34) Chun, Qsyng, 'Tasks to Substantiate Financial Education for the Adolescents in Korea', "Financial Health for Next Generation", Financial Education Summit 2006

35) 2009년 11월 현재 개편 추진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 교과군·학년군 편제 도입에 따라 이수 교과 수를 축소,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 알기", 2009. 9

36) 「사회」, 「일반사회A」, 「일반사회B」, 「역사」, 「역사A」, 「역사B」, 「지리A」, 「지리B」, 「도덕」, 「윤리A」, 「윤리B」 등

- 최근 들어 초, 중학교에서는 창의재량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수업 내용이나 학습 방식으로 교육 효과가 불안정
-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바꾸고 그 내용도 진로·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여 금융교육에의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현재 교과서에 편제되어 있는 금융교육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4> 학교 금융교육 내용 체계³⁷⁾

학교	학년	과 목	내 용
초등학교	1	바른생활	· 여럿이 쓰는 물건 아껴 쓰기
	2	바른생활	· 아껴 쓰는 생활(용돈,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구분, 절약)
		슬기로운 생활	· 가게 놀이(시장, 유통, 돈, 매매)
	3	도덕	· 물건 아끼기(근검절약)
	4	사회과탐구	· 소득, 지출의 의미 및 관리(가계부) · 금융기관의 역할, 저축의 목적, 예금의 종류와 필요성 · 합리적 소비 및 신용 관리
	5	실과	· 용돈 관리(용돈 계획, 용돈기입장, 금융기관 이용하기)
도덕		· 절제하는 생활, 공익과 사익의 조화	
6	실과	· 지출 및 구매 계획(용돈기입장)	
중학교	1	기술·가정	· 구매 의사결정
	2	사회	· 휴면 예금
		도덕	· 근검 절약, 지출 계획 세우기
3	사회	· 화폐의 변천과 기능, 저축 · 물물교환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고등학교	1	사 회	· 저축, 화폐 · 금융상품, 신용불량
		기술·가정	· 소비문화 · 생활설계(예산, 저축, 투자, 보험 등 자금관리)
	선택	경 제	· 소득, 저축, 자산, 이자율(신용카드 남용과 소비자 신용 위기, 가계 금융부채 급증, 가계의 저축 수단, 라이프사이클) · 금융정책(통화량, 공개시장 조작, 지급 준비율, 이자율 결정)
		생활경제	· 가계 계획과 저축(소득, 신용, 신용카드, 생활설계), 화폐가치 ·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관리(금융·실물자산 관리, 거래와 계약)
		법과 사회	· 보증 종류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가정과학	· 가계 예산과 지출, 금융기관 · 신용, 보험, 투자	

□ 교사의 전문성

-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전담교사제가 아닌 학급별 담임교사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융교육 부문은 양성 과정인 교육대학에서의 대비가 부족

37) 천규승, “청소년 금융교육 이대로 좋은가?”, YWCA 청소년금융교육 세미나, 2007

하고 재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³⁸⁾

－ 중·고등학교 금융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역시 미흡

- 사회과³⁹⁾는 물론 도덕, 기술·가정과⁴⁰⁾ 교사의 경우에도 양성 과정에서는 물론 재교육 과정에서도 금융교육에 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담당
- 창의적 재량 활동의 경우 교과를 불문하고 수업 부담이 적은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금융교육에 관한 전문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움⁴¹⁾

□ 교수 학습 방식

－ 현행 학교 금융교육은 담당 교사에게 수업 운영의 전적인 준비를 요구

- 최근 10여 년간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ICT 기법에 의한 온라인 학습 자료와 더불어 모둠 활동에 의한 역할극, 과제 발표 등 강의 중심 수업을 대체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수업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에게 의한 자료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높지 않음⁴²⁾

□ 학생들의 인식

－ 금융·투자·저축·용돈 관리, 신용 관리 등 실용적인 내용을 수업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은 1/3에 불과

38) 전국 12개 교육대학 중 6개 대학이 경제원론 1과목을 필수로, 나머지 6개 대학은 경제 관련 1과목을 사회과학 영역의 8개 선택과목 중 하나로 지정, 대부분 실과교육 관련 과목은 전공과정, 생활과학 관련 과목은 교양과정으로 지정하고 있어 금융교육을 위한 전문적 접근 미흡, Chun, Qsyng, op.cit.

39) 사회과 교사의 경우 학부에서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10.8%, 특히 역사, 지리 전공 교사의 경우, 각각 23.8%, 36.7%가 경제학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김진영 외,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중등사회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제16권 1호, 2009. 9. 참조

40) 중등학교 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 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의 경우, 도덕·윤리는 ①도덕·윤리교육론, ②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사상개론, 윤리교전강독, ③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발달)심리학 등, 가정은 ①가정교육론, ②영양학, 식품과 조리, ③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④주거와 실내디자인, ⑤가정경영, 소비자학, ⑥아동학, 가족학 등으로 구성(교육부고시 제2000-1호)

4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담당교사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가 45.4%, 주제와 관련된 교사 36.4%, 담임교사 1.6% 등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지도자료, 2002 참조

42) 배정 수업시간이나 학습 환경, 교사의 수업 운영능력, 학습자의 수용자세, 수업 현장에의 배포가능성 등 학교 현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공급자 위주의 금융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높지 않음, Chun, Qsyng, op. cit.

<표 5> 경제교육 내용의 실용성에 관한 인식⁴³⁾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다	38.2%	32.4%
보통	41.7	42.3
그렇지 않다	20.2	23.2

* 중학생 1,399명, 고등학생 1,916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 초등학생이 더 교육받고 싶어 하는 학습내용은 용돈 관리 방법과 필요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24%, 중, 고등학생은 자산 관리 방법이 48.5%와 60.3%

<표 6> 교과서 이외에 배우기를 희망하는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돈 관리 방법	24.2%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	5.2	17.0%
기업 최고 경영자가 되는 방법	10.8	최근 경제 상황 및 이슈	7.9	11.3
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	24.4	자산관리방법	48.5	60.3
필요한 물건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	23.9	효율적 용돈 관리	3.1	0.7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돕는 방법	15.2	경제학 이론·지식	7.9	5.0
기타	1.5	돈의 의미 및 가치	4.8	0.7
		미래의 준비, 진로, 직업	3.5	2.7
		세금을 포함하는 재정 활동	-	1.0
		기타	19.2	26.3

* 중복응답 포함, 초(N=4,399), 중(N=2,291), 고(N=2,325)

- 중학생 이후 저축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나 투자나 기부 활동은 미미

<표 7> 용돈 지출용도별 비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비	97.8	49.9	53.1
저축	2.0	24.8	25.0
투자	0.2	1.7	1.8
기부	0.0	6.5	6.1
기타	0.0	17.1	14.0

* 중복 응답 포함, 초(N=1,354), 중(N=2,088), 고(N=5,348)

43) 표5에서 표9는 경제교육협의회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07 참조

□ 학부모의 인식

- 학부모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교육 역량이 부족⁴⁴⁾
- 경제교육의 목표로서 금융, 신용 등 실용 지식의 습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용돈 관리, 중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용돈 관리와 자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희망

<표 8> 학부모가 인식하는 경제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1목표	제2목표	제1목표	제2목표	제1목표	제2목표
기본 경제 개념 및 원리	60.7%	10.0%	53.8%	11.0%	39.4%	13.4%
금융, 신용 등 실용지식	25.2	38.0	29.2	36.3	41.4	31.2
경제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8.3	24.2	8.7	25.1	9.5	23.4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능력	3.5	23.5	6.0	24.3	7.5	28.7
무응답	2.3	4.4	2.3	3.4	2.3	3.4

* 초(N=2,021), 중(N=1,276), 고(N=3,565)

<표 9>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제교육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1희망	제2희망	제1희망	제2희망	제1희망	제2희망
실생활 지식, 시사경제	12.1	23.9	12.4	16.9	11.5	17.4
자산관리	9.6	10.1	11.8	22.8	26.1	24.1
용돈관리	49.5	26.5	39.1	16.6	29.5	16.8
경제학 이론	3.7	2.9	3.2	3.9	3.2	2.7
직업	1.2	1.8	2.1	2.2	.9	1.3
돈의 가치, 절약, 신용관리	3.2	3.6	2.0	2.0	1.3	1.1
사회적 책임	0.4	0.9	0.4	1.2	0.6	1.1
합리적 소비	2.0	2.0	2.0	1.0	2.2	1.5
기타, 무응답	18.1	28.2	27.0	33.3	24.6	33.8

* 초(N=2,021), 중(N=1,276), 고(N=3,565)

44) 학부모들이 지적한 가정 금융교육의 장애요인은 자녀의 관심 부재 32.2%, 부모의 교육역량 부족 27.0%, 관련 교재 부족 18.5%, 타 사교육으로 인한 관심 부족 14.2%, 기타 8.1%로 나타남, 자녀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3%였으나, 가정 금융교육의 수준에 대해서는 수 0.0%, 우 9.4%, 미 42.1%, 양 37.3%, 가 11.2%로 평가, 국민은행연구소, 금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2003 참조

□ 학교교육 지원 체계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각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제각각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이 조율되지 않아 교육자원의 낭비 초래
-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엇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으로 사업이 편중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교육 지원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야기

<표 10> 주요 금융교육 지원 프로그램 현황

주 관	프로그램 내용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금융교실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중고교 교사 직무 연수 •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전국 25개 초·중·고교)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제교실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청소년 경제 캠프, 중고교 교사 직무 연수
투자자교육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투자교실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중고교 교사 직무 연수, 증권 경시대회 개최
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오프라인 교육 자료 개발 • 학교 방문교육, 공부방 금융교실 운영, 청소년 금융 캠프

5. 경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외 흐름으로부터의 시사점

□ 첫째, 정부 주도 하에 구체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 각국 정부는 개인 파산 증가 등 가계 부채 관리 실패를 계기로 개개인의 금융이해력이 경제적 성패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금융교육에 적극 개입
 - 금융이해력을 단순한 생활 편의수단이 아닌 생존수단으로 인식
 - 정부가 금융교육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민·관의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민간단체, 금융회사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교육 지원을 주도
- 우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 미흡

□ 둘째,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 선진 각 국은 금융교육을 의무화, 독립 과목화, 실용화
 -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재를 편찬하고,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갖도록 유인하는 콘텐츠 및 실용적 교육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핵심 과목에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 교육 추진
 - 각 급 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금융회사 직원 등 실무 전문가를 훈련하여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활용
 - 금융회사의 지원 아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은행 또는 학교 내 가상은행 설치 운영
 - 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우리와 일본의 경우 금융 부문을 범교과 차원의 학습주제로 규정하여 학습 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됨에 따라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일부 내용요소는 중복 편수되거나,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술 방향이 달라져 교수 학습에 혼란 야기
 - 실효성 있는 학습 기회 부족, 특히 신용 관리 및 보험, 노후대비 등 위기 관리 분야의 내용이 적절히 취급되지 않는 등 교육의 실효성 미흡.
 -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물론 재교육 과정에서도 금융에 관한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 학부모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교육 역량 부족

□ 셋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표준화

- 선진 각 국은 무분별한 정보 전달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교육 체계로서의 교육 목표, 내용 표준 등을 설정
 -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소득의 원천,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 신용 관리, 수익과 위험, 개인재무관리 등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되 기존의 금융거래 기량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금융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에 관한 태도, 의지 등의 훈련에 주력

- 우리의 경우 표준적인 내용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금융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혼선을 빚고, 교육 운영 주체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어 교육 효과 저하

□ 넷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내용적 타당성 검증

- 선진 각 국은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 의해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우수 교재에 대해서는 인증제 실시

□ 다섯째, 금융이해력에 관한 조사 분석 정례화

- 선진 각 국은 국민 각 층의 금융이해력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금융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이해력의 개선을 도모

V. 결론 및 제언

1. 금융교육 지원기반 확충

□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할 필요

-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캠페인 전개

- 금융교육 전반의 실태 조사 및 기초 통계 자료 확충⁴⁵⁾, 청소년 및 금융 소외계층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 등을 정례화 하여 전략 수립과 이행 상황 점검에 활용

- 공공기관, 민간단체, 금융기관, 대학, 매스컴, 시민사회의 교육역량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재 편찬, 교육 방법 개발 등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

- 소규모 집단 대상 맞춤형 교수학습, 상담 중심 일대일 대면 교육, 전화 상담 창구 개설, 금융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전문화⁴⁶⁾ 등

45) 2002년부터 통계청에서 '청소년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소비생활, 용돈, 금전관리 행동, 저축행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내용 결여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 강구

- 동영상, 체험담·사례집 등 재미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 개발

□ 매스컴 환경 활용

-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금융정보를 다수의 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중 전파력이 강하고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매스컴 환경을 적극 활용
- 신문·방송기자, PD·작가 등 교양, 오락 프로그램 담당 방송 제작진 대상의 워크숍·연수 기회 제공, 소재 지원
- 공중파 방송 등의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특히 교육방송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생애 설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으로 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2.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금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필수 과목으로서의 「금융생활」 과목(가칭) 과 선택 과목으로서의 「경제·금융」 과목(가칭) 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체계를 현실화하고 수업 시간을 확대

- 범 금융교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 기술·가정, 도덕 등의 과목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 지식, 금융생활 기량(가계 지출, 재무 관리, 신용 관리, 금융 투자, 납세 포함), 금융 관련 태도 등의 교육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

< 제1안 >

- ①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일반사회」, 「기술·가정」, 「도덕」의 금융관련 내용을 묶어 단일 과목으로서의 「금융생활」 과목(가칭) 신설
- ②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생활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교육 내용과 「경제」, 「생활경제」를 묶어 「경제·금융」 과목(가칭) 신설

46) 금융소외계층 청소년과 접촉이 빈번한 전국 시·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생활지도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방과 후 교실 지도 교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등을 통한 금융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등 금융소의 계층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복지정책과 금융교육을 연계하여 미흡한 학교 금융교육을 보완할 필요

< 제2안 >

- 현재와 같이 금융 지식 부문은 일반사회(경제), 금융생활 기량 부문은 실과(기술·가정), 금융 관련 태도 부문은 도덕으로 나누되,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학교 금융교육 내용 체계에 의해 과목별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연계

□ 이론 중심의 교수 학습 내용을 금융생활 중심으로 전환

-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금융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⁴⁷⁾
-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영역의 수업을 금융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통합교육 방안 개발

□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은행 설치

- 서민 소액대출 전문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을 보완하여, 산하에 제1, 2 금융권으로 구성된 학교은행 지원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개별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은행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구체적 지원 방안 강구
- 학생 및 자원 봉사 학부모가 학교은행을 운영하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금융기관이 자매결연 방식으로 학교은행 운영 실무를 지원

□ 교사 지도역량 증진

-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의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
-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 관심 있는 기관·단체가 각 급 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 대상 전문 연수 과정을 공동 설치하고 내용을 표준화하여 균질적 연수 기회를 제공
 - 각종 교사 직무연수에 금융교육 강좌를 포함하고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

47) 중·고등학생은 경제관련 분야의 설명으로 시뮬레이션 방식을 가장 선호(34.0%, 뒤를 이어 기존 교과서 형식의 교재, 만화, 외국어로 된 내용, 동영상, 동화·소설, 게임 순으로 선호한다는 응답, 삼성경제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2004

- 금융교육지도사 제도 시행 등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금융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협동 수업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부족한 지도 역량을 보완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 추진⁴⁸⁾
-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금융교육 내용이 수능시험에 출제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
 -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
-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 함양
 - 학교 급별로 학부모 금융 교실을 설치하고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 역량을 함양하는 한편 학교와 가정 간의 교육 피드백 시스템으로 활용

3. 교육대상별 내용 표준화

- 국가 표준으로서의 교육목표, 내용체계를 설정
 - 정부가 학계, 전문가 집단, 교육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대상별 국가 표준 교육 목표와 내용체계를 설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개개인의 금융 웰빙을 지원
 - 빛에 기초한 소비생활을 지양하고 욕구 통제와 저축 기반 소비생활 유도
 - 금융거래 기량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금융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에 관한 태도, 의지 등을 부각
 - 미래지향적 관점, 글로벌 차원에서 개개인의 금융생활 역량을 적극 함양 하되 생애 설계, 소득의 원천,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 부채와 신용관리, 수익과 위험, 연금과 보험, 노후대비 등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

48) 교사가 아닌 내용전문가에 의한 특강 형태의 금융교육은 도입 초기 교사의 금융관련 지식과 지도경험의 부족을 보완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였으나 교실수업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태에 대처 능력 부족과 정규 교육과정의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내용요소의 비표준성,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명. 이주홍, 김종호, '교사와 내용전문가의 교수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연구' - 초등학교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정보연구, 창간호, 2006. 4 참조

4.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금융이해력 조사

- OECD의 권고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내용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우수교재에 대한 인증제 실시
 - 교육 내용이 금융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정기적으로 평가
 - 우수 프로그램 공유로 개발 비용 절감
 -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을 평가, 인증하는 한편 금융이해력 조사와 내용 표준화 실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싱크탱크로 지정, 운영

<참 고 문 헌>

- 경제교육협의회,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07
-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2차 부분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2008. 12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 알기』, 2009. 9
- 국민은행연구소, 「금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2003
- 금융감독원, 「해외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2004
- _____ 「주요국의 금융교육 강화추세 및 시사점」, 2005
- _____ 「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시사점」, 2008
- _____ 「주요국의 금융역량강화 시스템」, 2008
- 금융위원회,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2008. 6
- _____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대책」, 2009. 4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지도자료』, 2002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채무불이행 실태보고」 2009. 4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 현황」, 2009. 6
- 전국은행연합회, 「선진국의 금융교육 실태 및 시사점」, 2005
-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2008. 8
- _____ 『2009년 2분기 가계 동향』, 2009. 8
- 한국신용정보, 『신용등급보고서』 2009. 6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13호, 2008. 5
- _____ 『금융안정보고서』 제14호, 2009. 4
- _____ 「외환위기 전후 가계소비의 경기 대칭성 변화분석」, 2009. 7
- _____ 「저축률의 국제비교와 평가」, 2009. 8
-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9. 1
- 김진영 외,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중등사회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제 16권 1호, 2009. 9
- 이주홍, 김종호, 「교사와 내용전문가의 교수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연구 - 초등학교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정보연구』 창간호, 2006. 4
- 천규승, 「청소년 금융교육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금융교육 세미나』, YWCA, 2007
- Canadian Policy Research Initiative, “Why financial capability matters”, Jun. 2005
- JumpStart Coalition,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Second Edition)”, 2002
- OECD,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Protection: Overlooked Aspects of the Crisis”, OECD RECOMMENDATION ON GOOD PRACTICES ON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LATING TO CREDIT, JUNE, 2009
- World Bank,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2007

- Chun, Qsyng, 'Tasks to Substantiate Financial Education for the Adolescents in Korea',
"Financial Health for Next Generation", *Financial Education Summit*, Nov. 2006,
- Jeanne Hogarth, "Financial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ECD International
Conference*, Nov. 2006
- Katy Jacob, "Tools for survival: An analysis of financial literacy programs",
Woodstock Institute, Jan. 2000
- Marco Habschick,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Schemes in the EU27", Nov. 2007